

국내 감수 실무 관행에 관한 고찰: 감수 절차 및 감수 항목을 중심으로*

박 지 영
(이주대)

1. 서론

감수는 번역의 오류를 바로 잡고 다듬어 번역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전체 번역에 화룡정점을 찍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감수를 생략하면 번역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교정하지 못하고 남겨진 오류는 단순 오타나 누락과 같이 사소하면 사소할수록 전체 번역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하지만 번역의 감수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번역 실무에서 ‘감수’라 함은 ‘원어민’ 감수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례로 원어민 감수자에 대해 목표 언어가 모국어라는 점 이외에 구체적인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1025220).

자격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번역이 국내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번역 방향임을 고려하면 원어인 감수의 중요성이 크다. 국내 공공기관들이 외국어에서 한국어(28.5%) 보다는 한국어에서 외국어 번역(71.5%)을 더 많이 수행한다는 신지선(2007: 79)의 연구 결과에서도 감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감수’에 전적으로 특화된 번역 교과목도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에 일각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계번역에 대한 사후 감수인 포스트에디팅을 번역 수업에 일부 적용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학원 수준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번역사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나 범위에 있어 번역과 감수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본 연구는 국내 감수 실무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감수의 명칭과 개념, 감수의 절차, 감수의 대상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국내 번역업체들이 작성한 번역 입찰제안서를 분석함으로써 감수 실무에서 누가 무엇을 감수하는지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감수 관행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2. 감수의 개념

‘감수’는 목표 텍스트의 최종적인 품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관련 용어나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Marco 2007; Mossop 2011: 116; Shih 2006: 295). <표 1>은 감수를 지칭하는 용어가 얼마나 다양한지 보여준다.

이러한 용어들은 감수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다. 품질통제(QC-ing, quality control) 등은 ‘감수의 목적’과 관련 있으며, 상호 읽기(cross-reading), 타인 감수(other revision), 자가 감수(self-revision)는 ‘감수의 주체’, 카피 에디팅(copy editing), 문체 편집(stylistic editing), 구조 편집(structural editing), 내용 편집(content editing)은 무엇을 감수할 것인가 하는 ‘감수의 대상’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수를 시행하는 주체는 크게 번역사 본인과 다른 사람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번역학에서 ‘자가 감수’로 칭한다. 자가 감수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 (Breedveld 2002; Shih 2006)이 연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보다는 실무에서 수행되는 타인에 의한 감수야말로 번역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브루넬과 로버트(Brunette & Robert 2016: 324)는 번역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감수 이외에, 현장 실무에서 수행되는 전문 감수자에 의한 감수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항 (2003; 2004)을 제외하면 전문 감수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표 1〉 ‘감수’를 지칭하는 여러 용어들

copy editing, stylistic editing, structural editing, other revision	모섭(Mossop 2011)
cross-reading, checking, re-reading, proofing, reviewing, QC-ing	마틴(Martin 2007)
revision reciproque, interrevision, validation, editing, revising	로버트(Robert 2008: 7)
review, re-reading, checking, cross-reading, proof-reading, review, quality control	모섭(Mossop 2014)
editing, checking, proofreading	레웅(Leong 2011)
editing	스졸다거(Schjöldager 2008)
révision linguistique	라첸스(Lachance 2007)
checking	그라함(Graham, 1989); 코(Ko, 2011); 사무엘슨-브라운(Samuelsson-Brown, 2004)
revision, self-revision	브리드벨드(Breedveld, 2002); 시(Shih, 2006)

둘째, 감수 방법은 감수의 명칭만큼이나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감수는 개개인이 나름의 판단에 따라 시행한다(Ko 2011: 123). 문제는 감수자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감수를 실시한다면 결과 또한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주관적인 감수 의견은 번역사가 산출해 내는 번역물의 품질이나 전문가로서의 번역사의 실력에 대한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수 과정에서 너무 많은 변경사항이 지적되면 번역의 품질과 번역사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번역사와 감수자가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다. 이 때 번역사는 감수 의견에 답변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Leong 2011: 126-130). 감수자가 충분한 번역 경력을 갖춘 적격자가 아닐 때 이러한 문제는 더 커진다.

작성된 텍스트를 작성자 이외의 사람이 확인해서 수정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감수의 본래 목적(Schjoldager, Rasmussen & Thomsen 2008: 803)과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감수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이다(Ko 2011: 126).

셋째, 감수 방법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감수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하우스(House 2001: 247-248)는 직관적이며 주관적인 번역 평가를 반응 중심 접근법(response-based approach)으로 비판하며 상세하고 객관적인 번역 비평 모델을 제시하였다. 감수는 번역에 대한 비평을 근거로 하는 것인 바(Chesterman 2000), 번역 감수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의적 기준이 아닌, 검증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Reiss 2000: 4).

3. 감수의 절차

감수에 대한 연구는 번역학 이외의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이루어져 왔다. 글쓰기와 관련된 작문학(writing studies)이 대표적이다. 작문학에서 논의되는 전반적인 텍스트 작성 과정은 번역학(translation studies)과 유사한 점이 있다(Brunette & Robert 2016: 324). 작문학에서는 글쓰기 단계를 기획, 작성, 검토의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Hayes, Flower, Schriver, Stratman & Carey 1987), 번역 역시 기획(orientation), 번역(drafting), 감수(revision)의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하다(Jakobsen 2002).

또한 글쓰기와 번역 모두 작성된 텍스트를 검토하는 ‘감수’의 과정을 포함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감수에 사용하는 텍스트는 서로 다르다. 글쓰기의 감수에서는 창작 텍스트만이 검토 대상인 반면, 번역의 감수에는 목표 텍스트 자체 뿐 아니라 그 원천 텍스트 또한 확인한다.

창작 텍스트의 감수 방식은 비세일론(Bisailon 2007: 302-303)의 ‘전문 감수 프로세스 모델(Professional Editor’s Revision Process: A Linear Model)’ 모델을 참

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감수자는 먼저 텍스트를 읽고(reading, R) 문제를 발견해(detection, D), 수정한다(checking, C) 후 다시 읽는 과정(reading, R)을 거친다.

읽기(R) → 문제 발견(D) → 수정(C) → 읽기(R)

그런데 번역을 감수할 때는 목표텍스트 뿐 아니라 원천텍스트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감수할 수 있다. 글쓰기의 감수가 ‘읽기’와 ‘수정’으로 이어지는 비교적 단순 명료한 과정인데 비해, 번역의 감수는 읽을 텍스트의 순서, 횟수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 감수 방식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세 가지 문제를 다룬다. 감수자가 (1) 목표 텍스트만 읽고 감수할지 또는 원천 텍스트와 대조해 감수할지, (2) 대조한다면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 중 무엇을 먼저 읽어야 하는지, (3)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Mossop 2011)이다. 이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감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Robert 2014: 9).

- A. TT 읽기 → 수정
- B. TT 읽기 → (필요 시 ST 읽기) → 수정
- C. TT 읽기 → 수정 → ST/TT 비교하며 읽기 → (수정)
- D. ST/TT 비교하며 읽기 → 수정
- E. ST/TT 비교하며 읽기 → 수정 → TT 읽기 → (수정)
- F. ST 읽기 → ST/TT 비교하며 읽기 → 수정 → TT 읽기 → (수정)
- G. ST 읽기 → TT 읽기 → 수정 → ST/TT 비교하며 읽기 → (수정)

이와 같은 일곱 가지 감수 방법들은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를 비교하여 감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목표텍스트만을 읽는 방식은 A, B이며, 나머지는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후자는 다시 목표 텍스트를 먼저 읽는 방식인 C,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 비교를 먼저 시행하는 D와 E, 원천텍스트를 먼저 읽는 F와 G로 구분할 수 있다.

3.1 단일언어감수

A, B와 같이 원천 텍스트를 확인하지 않고 목표 텍스트를 먼저 읽는 단일언어감수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 그라함(Graham 1989), 질(Gile 1995) 등은 원천 텍스트와의 대조 없이 목표 텍스트만을 검토하며 감수하는 방법을 권장했다.

목표 텍스트를 먼저 읽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원천 텍스트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Kunzli 2006:13). 감수자는 원천 텍스트 없이 목표 텍스트를 먼저 읽음으로써 목표 텍스트 독자의 입장이 될 수 있으며(Mossop 2011; Kunzli 2006, 2007), 문장의 흐름이나 논리적 구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목표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시간이 촉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감수 방법이기도 하다(Mossop 2011).

A. TT 읽기 → 수정

B. TT 읽기 → (필요 시 ST 읽기) → 수정

하지만 단일언어감수는 원천 텍스트에 대한 충실성과(Mossop 2011)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Horgueling & Brunette 1998: 40; Robert 2008 재인용). 여러 문헌에서 단일언어감수 후 이중언어감수를 시행하는 C를 지지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Hine 2003; Rochard 1999; Robert 2008 재인용).

3.2 이중언어감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일언어감수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중언어감수를 함께 시행한다. 이중언어감수는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 중 무엇을 먼저 읽을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목표 텍스트만을 읽고 단일언어감수를 실시한 후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를 비교 검토하는 이중언어감수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 같은 방법은 단일언어감수를 이중언어감수 전에 실시하는 중요한 단계로 보는 하인(Hine 2003: 139) 등이 제안하였다. 로차드(Rochard 1999: 10)는 목표 텍스트만을 읽

는 단계에서는 응집성(coherence)에, 다음으로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를 함께 읽는 단계에서는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C. TT 읽기 → 수정 → ST/TT 비교하며 읽기 → (수정)

둘째,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를 비교해 읽고 수정하는 이중언어감수 후 단일언어감수를 시행하는 방법이다. 세이저(Sager 1994)는 E와 같이 두 단계의 감수 단계, 즉 처음에는 원천 텍스트와 비교하며 목표 텍스트를 읽고 다음에는 목표 텍스트만 읽는 방식을 권한다(Robert & Van Waes 2014: 307). 감수자가 감수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변경시키는 경향이 있다면 이와 같이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의 비교 읽기를 먼저 해야 한다(Mossop 2011). E는 읽는 텍스트의 순서만 다른 C와 비교되는 경우가 많은데, 로버트(Robert 2008: 13)에 따르면 C보다는 E를 지지하는 문헌이 더 많다.

E. ST/TT 비교하며 읽기 → 수정 → TT 읽기 → (수정)

흥미롭게도 한 단계로 구성되어 효율적으로 보이는 감수 방식 D를 권고하는 문헌은 찾아보기 힘들다. D와 마찬가지로 한 단계의 감수 방식이되, 목표 텍스트만을 읽고 바로 수정하는 A 방식을 주장한 학자들이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D. ST/TT 비교하며 읽기 → 수정

셋째, 원천텍스트를 가장 먼저 읽고 감수하는 방식이다. 오르글랭과 부르네트(Horgueling & Brunette 1998: 39)는 일반적으로 F가 이상적인 감수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로버트(Robert 2008: 13)는 실질적으로는 원천 텍스트만을 읽는 단계를 생략하고 원천텍스트와 목표텍스트의 비교 읽기만을 할 때가 많으며, 원천 텍스트를 읽더라도 감수자는 원천 텍스트 전체를 읽기보다는 번역 내용에 의문이 있을 때만 부분적으로 원천 텍스트만을 읽는다고 설명한다.

F. ST 읽기 → ST/TT 비교하며 읽기 → 수정 → TT 읽기 → (수정)

원천텍스트를 먼저 읽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읽는 순서를 원천 텍스트, 목표 텍스트, 양자 간 비교로 설정한 G도 있다.

G. ST 읽기 → TT 읽기 → 수정 → ST/TT 비교하며 읽기 → (수정)

하지만 원천 텍스트 다음에 어떤 텍스트를 읽느냐와 관계없이, 원천 텍스트를 먼저 읽는 F와 G의 감수 방식은 별로 쓰이지 않는다고 선행 연구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F, G는 너무 상세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Brunette, Gagon & Hine 2005: 43).

4. 감수의 대상

4.1 등가

선행연구는 주로 등가, 어휘와 문체, 스키포스 등 화용적 특성, 텍스트성, 문서 편집의 주로 다섯 가지를 번역 감수 대상으로 논의해 왔다. 이 중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등가이다. 이는 원천 텍스트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했는지 즉, 오역이나 누락 없이 원천 텍스트와의 등가가 달성되었는지를 말한다. 이와 같은 등가 혹은 원천 텍스트에 대한 충실성을 지칭해 ‘정확성(accuracy)’(Mossop 2011: 55; Schjoldager et al. 2008: 803), ‘완결성(completeness)’(Mossop 2011: 55)과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었다(Gile 1995; Reiss 2000). 하우스(House 1977)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오류를 ‘명백한 오류(overtly erroneous error)’로 분류했다.

모섭(2011)은 또한 번역된 내용의 논리(logic)와 사실(fact)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목표 텍스트의 응집성을 감수자가 검토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스졸다거 외(Schjoldager et al. 2008: 803-806)는 중복되거나 부적절한 내용, 관련성이 결여된 부분을 감수자가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내용을 감수할 때에는 기관의 정책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여부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배치되는 의견도 있다. 비세일론(Bisailon 2007: 296-300)은 전

문 감수자는 번역된 텍스트의 내용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천 텍스트의 내용에 오류가 없고 적절하다면, 그 원천 텍스트에 충실한 번역의 내용 역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

4.2 어휘와 문체

어휘 역시 여러 문헌에서 언급되는 감수 대상이다. 이는 ‘어휘 선택(word choice)’, ‘어휘(lexis)’ 등으로 칭하며, 어휘 선택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적합한 전문용어(sub-language)의 사용’(Mossop 2011), ‘관용적 표현의 올바른 사용(idiom, idiomaticity)’(Mossop 2011; Chakhachiro 2005), ‘텍스트에 어울리는 격식성을 갖춘 어휘 사용 여부(formality)’(Chakhachiro 2005) 등이 제시되었다.

문체 역시 감수 대상으로 여러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문체의 적절성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은 학자마다 다르게 제시했다. 라이스(Reiss 2000)는 단순히 ‘문체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차카치로(Chakhachiro 2005)는 번역된 텍스트의 문체는 번역 비평의 주요 관심사항이라고 설명하며, 감수자는 ‘목표 문화에 적합한 문체’로 번역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적었다. 모섭(Mossop 2011)은 문체가 해당 장르에 적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졸다거 외(Schjoldager et al. 2008: 806)는 독자를 고려해 번역된 텍스트의 문체를 유려하게 수정하는(amelioration) 등 감수 과정에서 문체를 전반적으로 변경하거나 텍스트를 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번역에 있어 문체는 문화, 장르, 독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감수자가 이를 수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반해 비세일론(Bisailon 2007: 296-300)은 ‘전문 감수자는 (문체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문체를 감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문체가 감수 대상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데 비해 학자마다 문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르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문체를 아예 감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반된 시각 또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가 문체 감수에 대해 이와 같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감수자들 역시 문체를 감수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시각과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4.3 스코포스, 독자, 문화소 등 화용적 특성

다음으로 자주 언급되는 항목은 스코포스와 독자, 문화소로 원천 텍스트와 다르게 변경하여 등가를 이루지 않더라도 정당화되는 요인이다. 목표 텍스트에 의도된 기능, 즉 스코포스에 부합하는 번역인지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모섭(Mossop 2011)은 ‘용도 적합성(tailoring)’, 차카치로(Chakhachiro 2005)는 ‘텍스트의 기능(tenor)’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번역이 독자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함은 ‘독자 적합성(tailoring)’(Mossop 2011), ‘독자의 배경지식(presupposition)’(Chakhachiro 2005), ‘독자와의 소통 효율성(communicational conception)’(Bisailon 2007)’으로 설명했다.

또한 번역이 원천 언어와 목표 언어 간 문화차를 고려했는지(Schjoldager et al. 2008), 원천 텍스트가 목표 문화에 맞게 다시 쓰였는지(rewriting)(Chakhachiro 2005) 역시 감수자가 확인할 수 있다. 하우스(House 1977)는 이렇듯 목표 언어권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를 ‘숨은 오류(covertly erroneous error)’로 칭했다.

나아가 장르 분석을 통해 주어진 텍스트의 목적, 상황적 맥락, 텍스트의 관행(convention), 문화적 차이 및 이러한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해 번역에 반영했는지 여부 또한 감수의 대상이다(Schjoldager et al. 2008: 807).

4.4 논리 및 텍스트성

텍스트성 측면에서 번역된 문장의 조직과 구성을 감수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차카치로(Chakhachiro 2005: 234-237)는 ‘문장 간 연결(smoothness)’ ‘주제 구조(thematic structure)’, ‘절 구조(subordination, coordination)’, ‘응집성(cohesion)’, ‘주제어 변경(topic shift)’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절 구조가 의미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체계기능문법의 용어를 차용한 기준이다.

이 같은 문장 구성 방식은 형태적 요소이지만, 목표 텍스트의 의미와 가독성, 논리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성을 감수 대상으로 꼽은 문헌이 적은 이유는 문장과 문단의 수정

은 어휘 수정 등에 비해 넓은 범위의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일지 모른다. 텍스트성을 고려해 감수하고 수정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드는 점, 즉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감수 보다는 번역 단계에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4.5 어법과 편집

어법과 편집 역시 번역된 텍스트를 구성하는 형식적 요소이다. 특히 어법은 언어 자체의 형식이므로 감수 대상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모섭(Mossop 2011)은 감수 시 ‘문법(mechanics)’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적었고, 차카치로(Chakhachiro 2005: 234-237)는 ‘문법(grammar),’ ‘통사적 복잡성(syntactic complexity)’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세일론(Bisailon 2007: 296-300) 역시 ‘문법,’ ‘통사 구조,’ ‘언어별 관행(linguistic convention)’을 확인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반면, 감수자가 문서 편집 상태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 것은 모섭(Mossop 2011)이다. 그는 ‘페이지 레이아웃(page layout),’ ‘활자 편집(typography),’ ‘문서 편집양식(organization)’ 역시 감수 항목에 포함시켰다.

5. 분석: 국내 번역회사의 감수

5.1 데이터

본 연구는 국내 번역회사들의 감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외국어 관광 안내표기 번역 및 감수 지원’ 사업에 응찰한 네 개 업체의 입찰제안서에 기술된 감수 절차 및 대상을 분석하였다. 서울시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제안서를 데이터로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내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번역 용역 프로젝트의 공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사 규모나 매출액, 번역 수주 이력 측면에서 발주처가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번역용역에 입찰 제안사로 선정되었음은 이러한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임을 입증한다. 국내 번역산업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번역회사들의 규모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정부 기관의 번역 용역에 제안사로 참여하였음은 번역 시장 내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들 업체의 감수 방식 역시 국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서울시의 해당 번역 프로젝트는 외국어 관광 안내문에 대한 번역 및 감수 사업으로, 번역의 대상이 정보적, 표현적, 작용적 텍스트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관광지의 역사적 사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정보적이며, 관광지의 문화적 특징과 가치에 대한 설명은 표현적이고, 관광지에 대한 관심과 방문을 권유한다는 점에서 작용적이다. 해당 프로젝트의 번역은 단순 정보 전달 뿐 아니라 목표 언어권의 독자를 고려한 문화소의 번역 등 다양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찰제안서에 기술된 감수 절차는 이와 같이 번역된 텍스트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를 반영할 것이므로, 제안된 감수의 절차와 대상을 분석함으로써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참고로 해당 번역 프로젝트는 한국어로 작성된 원천 텍스트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세 언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였다. 영어는 중국어와 일본어에 비해 원천 언어인 한국어와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가업체들은 감수 절차와 감수 대상을 목표 언어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본 연구자의 전공 언어인 영어를 중심으로 국내 번역회사의 감수 절차 및 감수 대상을 살펴보았다.

5.2 감수 절차 및 감수자

<표 1>은 분석한 네 번역회사의 감수 절차를 보여준다. ‘번역’으로 시작해서 ‘프로젝트 종료 후 검토’로 마무리되는 전체 번역 과정 중 감수 단계에 대해서만 시행 순서를 숫자로 표기하였다. 감수 절차는 최소 3단계에서 5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업체가 이중언어감수와 단일언어감수를 실시하겠다고 제안했으며, 특히 각 감수 과정을 한 번 이상 진행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표 2〉 국내 번역회사의 감수 절차

상세 내용	A	B	C	D
번역 (Translation)				
번역사 자가 교정 (Checking)/기계번역 수정(Post-editing)				
이중언어감수(Editing/Revision)	①	① ③	① ③	② ④
단일언어감수(Editing/Review)	② ③	② ④	② ④	① ③
제3자 감수(Third-party Review)			⑤	
문서 편집 (Formatting & Compilation)				
프로젝트 종료 후 검토(Post-project Review)				

텍스트를 읽는 순서를 살펴보면 A, B, C업체는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는 이중언어감수를 먼저 실시한 후, 목표 텍스트만을 읽고 시행하는 단일언어감수를 하는 것으로 밝혔다. D업체만이 이와 반대로 단일언어감수 후 이중언어감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로버트(Robert 2014)가 제시한 감수 과정 중 E과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 업체만이 C 방식으로 감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모든 업체가 단일언어감수와 이중언어감수 각각을 한 번 이상 반복함으로써 철저한 감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업체는 이중언어감수와 단일언어감수 이외에 제 3자에 의한 감수를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감수 절차의 명칭을 살펴보면, 이중언어감수의 경우 ‘원문대조 QA’, ‘원본 대조감수’, ‘PM 감수’, ‘Review 감수’, ‘전문용어감수’로 표기되어 있었다. ‘대조’와 같은 단어는 해당 단계가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를 비교 대조하는 방식의 감수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명칭들은 또한 감수 주체와도 관계된다. 제안서에서는 이중언어감수를 담당하는 인력을 ‘프로젝트 매니저’, ‘감수자’, ‘전문용어 감수자’, ‘영어 리뷰(어)’로 칭했다. 업체들은 감수를 담당할 인력의 자격 사항을 함께 소개하였는데, 프로젝트 매니저의 경우 영문학 등 어학 전공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대부분이었다. 통번역대학원 출신이 소수 있었으며, 해외 학위 소지자는 없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아닌 다른 이중언어감수자의 자격 사항을 살펴보면, 영문학 전공자, 통번역 석사 학위 소지자, 해외 학위 소지자로 다양했다. 해외 학위 소지자의 경우 대부분 영어 또는 통번역과 관련 없는 전공이었다.

이러한 인력의 등급을 표기한 업체가 한 곳 있었는데, 프로젝트 매니저는 ‘중’, 번역사와 감수자는 ‘상’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이중언어감수자들은 번역업체의 내부 인력인지 여부와 목표 언어 수준의 차이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여타 이중언어감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언어 능력을 보유한 내부 인력임을 알 수 있었다. 제안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저에 의한 이중언어감수는 최초의 감수 단계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아닌 인력에 의한 이중언어감수는 원어민 감수 이후 세 번째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었다.

단일언어감수는 ‘원어민 감수’, ‘Native 감수’로 명명해, 주로 감수 시행 주체가 원어민임을 강조하였다. 원어민 감수자들은 해외 대학 출신 원어민으로 대부분 영어나 통번역과 무관한 분야의 전공자였다. 소수만이 영문학, 언어학, 통번역학 등 언어나 통번역 관련 분야를 전공했거나, 아시아지역연구(Asian Studies) 등 원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는 전공의 학위 소지자였다. 하지만 제안서 상에 단일언어감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설명했으면서도, 담당 인력의 요건에 관해 ‘원어민’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자격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중언어감수와 단일언어감수 단계에서 감수 항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5.3 감수 대상

5.3.1 1차 이중언어감수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 감수자에 의한 이중언어감수의 대상은 등가, 어휘, 어법, 편집 상태였다. 원천 텍스트와의 등가는 이중언어감수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원천 언어 능력이 없는 목표 언어의 원어민 감수자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표 3>에서 보듯 업체들의 원천 텍스트와의 등가에 관한 설명에는 ‘원문과 번역문의 대조’, ‘원문과 비교’와 같은 표현이 많았으며, 이를 통해 ‘오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표 3〉 1차 이중언어감수에 대한 국내 번역회사의 기술

1	등가	오역의 검토와 제공
		원문과 번역문의 1:1대조를 통한 오역
		의역과 직역여부 (번역투)
		오역, 누락
		원문과 비교하여 오타, 누락, 상이한 문장 표현 등 방지 목적
내용	-	
2	어휘	번역 지침
		용어 DB 준수 여부 확인
		표준화 표기 및 용어 통일 여부 확인
		지명, 표기법 등 준수여부 감수
		DB준용 여부 확인
		일관성 및 고품질 지향
	스타일 통일	
문체	문장길이 가독성	
3	화용적 특성	단위, 도량형의 현지화: 현지의 표준단위로 변환되었는가? 외국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모호한 부분 감수)
4	논리 및 텍스트성	-
5	어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표기법 준용 확인
		Typo: 스펠링, 특수기호, 부호 등이 정확한가?
		오타자 감수
	편집	문장의 위치
		표와 그림: 위치, 내용, 전체적인 구성이 정확한가?
		지침 준수 여부: 편집지침서를 준수하였는가?
		목차: 목차번호 형식 및 순서는 원문 그대로 표기했는가?
		본문: 글자체, 글자 크기, 굵기 등의 구분은 원문 그대로인가?
도표 및 그래프: 원문의 수치 및 디자인이 그대로 반영되었는가?		

어휘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용어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1차 이중언어 감수의 목적이었다. 용어 데이터베이스나 지침을 ‘준수’했는지 확인해 용어 사용상의 ‘일관성’,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감수 대상으로 어휘를 설명할 때,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스타일은 문체와 관련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는 ‘스타

일 통일'이란 표현으로 반복되는 어휘나 표현을 일관되게 번역했는지 감수자가 확인함을 설명했다.

이중언어감수에서는 문법이 아닌 어법이 감수 대상이었다. 맞춤법, 철자법, 문장 부호, 오타자의 확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중언어감수자들은 언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편집 상태도 확인한다. 표, 그림, 목차의 형식과 순서, 글자체 등이 원천 텍스트와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원천 텍스트의 표를 단순히 번역하는데 그치지 않고, 목표 텍스트 내에서 번역된 표현이나 문장이 적합한 위치에 정해진 편집 규정에 따라 바르게 표현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를 대조해야 한다. 따라서 편집 상태 역시 이중언어감수 단계의 확인 사항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1차 이중언어감수의 대상인 등가, 어휘, 어법, 편집은 정해진 규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등가는 원천 텍스트를 근거로 판단하며, 어휘는 주어진 용어 데이터베이스나 용어집, 어법은 어문규정, 편집은 원천 텍스트의 편집상태 혹은 편집 지침을 기준으로 그 정확성을 판단한다. 1차 이중언어감수를 담당하는 감수자는 무엇을 변경해야 할지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감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감수 결과가 좌우되지 않으며, 특별히 높은 수준의 목표언어 능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중언어 구사자이면 감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3.2 1차 단일언어감수

1차 단일언어감수의 대상은 어휘, 문체, 문법이다. 어휘는 앞서 살펴본 1차 이중언어감수에서도 감수 대상이었다. 하지만 1차 단일언어감수에서는 용어 사용의 일관성과 정해진 용어집의 준수 이외에 추가적인 어휘 감수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보듯 어휘의 감수와 관련하여 사용된 표현은 '세련된', '품격 있는', '고급스런' 등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언어 사용역(register)', '문법적 은유(grammatical metaphor)', '평가어(appraisal)'나 '연어(collocation)', '이디엄(idiomatic expression)' 등과 같은 언어학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기술하였다. 문체 감수는 주로 문법과 가독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문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문법'을 감수하는 것

으로 기술한 반면, 가독성은 ‘어색하지 않은’, ‘현지 문화에 맞는’과 같은 수식어로 설명하였다. 제안 업체들은 문체의 감수에 대해서도 언어학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설명했다.

〈표 4〉 1차 단일언어감수에 대한 국내 번역회사의 기술

1	등가	-
	내용	내용의 일관성 및 통일성 감수
2	어휘	품격있는 고급스러운 문장 구사
		현대적이고 세련된 표현 구사
		Style: 표현 및 문체 등이 통일되어 있는가?
		Glossary: 표준화된 용어집을 적용하였는가?
		제공된 용어 표기지침을 준수하였는가?
		용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였는가?
		용어적용의 정확성
	문체	문법 및 표현 감수
		Suggestion: 문장이 어색하지 않고 가독성이 높은가?
		Grammar: 맞춤법, 띄어쓰기 등 문법적인 오류는 없는가?
		해당언어에 대한 언어적 결함 중점 감수
		자연스러운 표현을 통한 정확한 의미 전달
		원어민 2차 감수 (문법, 용어, 표현 등 검토)
		현대적이고 세련된 표현 구사
현지 문화에 맞는 문장 표현, 어법, 문법 등 원어민 감수		
*원어민과 번역사의 크로스체크, 데스크의 최종검수를 통한 품격있는 고급 언어 구사		
문장의 이해도 증가		
3	화용적 특성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모호하고 불명확한 부분 감수
		작성 용도에 맞는 적절한 의견 제시
4	논리 및 텍스트성	-
5	어법	Typo: 스펠링, 특수기호, 부호 등이 정확한가?
	편집	
6	기타	지정 전문 원어민 감수자의 감수 ¹⁾

이상과 같은 1차 단일언어감수의 검토 사항들은 감수자에 따라 주관적 의

1) ‘의뢰인이 지정한 원어민을 투입하여 감수를 진행함’을 뜻함.

사결정이 내려질 여지가 있다. 동일한 감수 항목이라 하더라도 1차 이중언어감수에서는 비교적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측면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제안서에 기술된 ‘문체 감수’의 기준이 1차 이중언어감수에서는 ‘문장 길이’였으나, 1차 단일언어감수의 경우 문장의 ‘자연스러움’, ‘세련됨’ 등으로 감수자의 선호에 따라 수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1차 이중언어감수에 비해 1차 단일언어감수는 전반적으로 감수자의 선호, 경험, 실력에 따라 감수 결과에 편차가 생길 여지가 있다.

1차 이중언어감수 항목이었던 문법 역시 1차 단일언어감수 대상이었다. 여러 번 검토하여 모든 오류를 철저히 수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1차 단일언어감수에서 검토되는 어감, 어조,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자연스러운 표현의 사용 여부 등은 자연스러운 표현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원어민 감수자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 이중언어감수자는 정해진 규정을 준수했는지 판단하는 어법을 주로 감수하는 것으로 기술된 것과 대비된다.

5.3.3 2차 이중언어감수

2차 이중언어감수에서도 1차 이중언어감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어휘와 편집 상태를 확인한다. 하지만 1차 이중언어감수에서 확인했던 등가와 어법은 감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두 가지는 한 번의 감수만으로 충분히 검토와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어휘는 1차, 2차 이중언어감수 모두에서 검토 대상이다. 1차에서는 용어집 준수 등을 확인해 어휘 사용의 일관성을 확인했으나, 2차 이중언어감수에서는 ‘전문용어’, ‘내용별 적합함’과 같은 기준을 제시해 분야나 장르별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선택했는지 검토한다. 감수를 4단계로 구성한 타 업체와 달리, 5단계로 구성하였던 C업체의 마지막 감수 단계인 ‘전문용어 감수(한국인)’에서도 해당 분야의 용어를 정확히 사용했는지 한 번 더 검토한다.

2차 이중언어감수의 편집 상태 확인은 목표 텍스트를 매체에 탑재 후 실시한다. ‘화면’, ‘(웹) 사이트’, ‘간행물’과 같은 매체에 목표 텍스트를 적용한 후에도 원래 계획했던 편집 상태가 유지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1차 이중언어감수에서는 이와 같은 매체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

〈표 5〉 2차 이중언어검수에 대한 국내 번역회사의 기술

1	등가	-
	내용	-
2	어휘	전문 용어검수 (한국인)
		전문용어 및 문장 교정 검수
		전문용어 검수
		용어 공통 적용 확인
	내용별(관광용어, 안내 설명문, 음식 메뉴 등) 적합한 용어 사용 유무 재검토	
문체	언어적 특성과 관련 전체적 흐름과 어감 등 검수 실시	
3	화용적 특성	
4	논리 및 텍스트성	-
5	어법	-
	편집	화면 검수 및 교정
		사이트 번역 후 화면상 오탈자 검토
	간행물의 인쇄 직전 오탈자 검토	
6	기타	PM 3차 검수 (검수자 수정사항 검토, 포맷 확인)

5.3.4 2차 단일언어검수

2차 단일언어검수 항목은 1차 단일언어검수 항목에 비해 검토 항목의 수가 적고 주로 어휘와 문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1차 단일언어검수에서는 어휘를 유려하고 고급스럽게 표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면, 2차 단일언어검수는 ‘발음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했는지 검토해 전반적인 가독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문체를 검수해 ‘문장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설명에도 나타난다. 또한 전문 용어 사용과 문법을 재검토하는 단계임을 설명했다. 2차 이중언어검수는 원어민이 전반적인 가독성을 확인하고, 정확한 용어 선택과 문법 오류 등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최종 점검 단계임을 알 수 있다.

〈표 6〉 2차 단일언어감수에 대한 국내 번역회사의 기술

1	등가	
	내용	
2	어휘	외국인이 발음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표현 검토
	문체	해외 문법 및 표현 적합도 재검토
		문장의 완성도
		전문가에 의한 전문용어 및 문장 교정
3	화용적 특성	언어권별 문화적 특성 등 감안
		번역물의 최종이용 대상, 용도에 합당한 문장 사용 여부 최종 확인
4	논리 및 텍스트성	-
5	어법	-
	편집	-
6	기타	의문 사항 리스트 작성
		최종 납품 전에 원어민이 재감수

6. 논의

본 논문은 감수가 번역의 품질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수 과정과 대상에 대한 선행 연구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번역업체의 감수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한 국내 번역 업체들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에 의한 집단적 감수를 실시한다.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국내에서 목표 언어의 원어민이면서 원천 언어인 한국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감수자를 찾기 어려워, 한국인 감수자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보인다. 이에 따라 단일언어감수와 이중언어 감수를 담당하는 인력이 구분되어 있다. 단일언어감수는 목표 언어의 원어민이, 이중언어감수는 목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이 담당한다.

단일언어감수를 담당하는 감수자들은 학사 학위를 소지한 목표 언어의 원어민이다. ISO 번역품질표준은 단일언어감수자가 목표언어 능력과 더불어 주제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ISO/TS 11669). 즉, 목표 텍스트 내 언어적 표현 뿐 아니라 번역된 내용 또한 확인,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한다고 정하고 있다(박지영 2015: 49). 하지만 분석한 입찰제안서에서는 원어민 감수자의 주제 지식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중언어감수에는 번역회사 내, 외부 인력이 모두 참여한다. 이중언어감수자의 자격사항에 관한 번역회사의 설명을 근거로 살펴볼 때, 양자 중 내부 인력보다는 외부 단일언어감수자들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목표 언어 구사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감수 절차는 분석한 대부분의 업체가 이중언어감수를 실시한 후 목표 언어의 원어민에 의한 단일언어감수를 실시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었다. 또한 이중언어감수와 단일언어감수를 각 1회 이상 시행하여, 총 4회 이상의 감수를 진행한다. 이는 산출되는 목표 텍스트를 철저히 검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러 번의 감수는 진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 감수 단계에 많은 자원을 할애함으로써 정작 가장 중요한 번역 단계에 번역료를 삭감하거나 번역기간을 단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분석한 번역 용역에 대해 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이 우려된다.

둘째, 이중언어감수자는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를 비교하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오류를 발견해 수정하는데 비해, 단일언어감수자는 주로 원어민으로서 직관을 요하는 항목을 감수한다. 이와 같은 역할 구분에 따라 한국인 이중언어감수자가 번역의 정확성과 충실성, 정해진 어휘의 사용, 어법 준수, 원천 텍스트와 동일한 편집 여부를 검토한다. 원어민 단일언어감수자는 주로 어휘 및 표현의 격식성과 자연스러움을 확인하고, 문법이 정확한지, 외국인이 읽기에 무리 없는 가독성 높은 문체로 번역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수정한다. 원어민 감수자가 담당하는 감수 항목은 개인의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있어, 감수자의 능력에 따라 감수 결과의 편차가 클 수 있다.

시행 순서는 이중언어감수를 단일언어감수보다 먼저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중언어감수자가 원천 텍스트와의 등가를 먼저 확인해, 목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원어민 감수자의 단점을 보완한다. 원천 텍스트에 대한 충실성이 이미 검토되어 있으므로, 원어민 감수자는 번역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해 감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역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셋째, 목표 텍스트의 어휘와 문체는 모든 감수 단계에서 검토하는 반면, 논리와 텍스트성을 감수하는 단계는 없었다. 감수 시 번역의 내용보다는 표현적

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 흐름, 응집성 등을 살려 목표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번역 단계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천 텍스트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 역시 번역사의 역할일 것이다. 이러한 국내 관행은 감수자가 번역된 내용 또한 검토하도록 규정한 ISO 번역 표준과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도 문장의 조직과 구성, 전체적인 텍스트성을 감수 대상으로 설명한 문헌이 적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국내에 국한된 특이한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번역업체의 번역 용역 입찰 제안서를 분석해 감수 실무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국내 실정에 따라 ‘원어민’에 의한 단일언어감수 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특수성을 파악하고 현행 감수 방식의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감수 실무 관행을 개선하거나 감수 관련 교과목의 개설 등을 통해 감수 인력을 양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분석한 데이터가 총 네 개 업체의 자료에 지나지 않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번역 업체들이 자체적인 감수 평가표를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사내 문서의 공개에 적극적이지 않다.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감수 인력에 대한 자료도 마찬가지이다. 업무 방식에 각 업체의 축적된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지식 산업인 번역이 투입 인력의 경쟁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향후 번역 업계와 연구자들 간 교류가 활성화 되어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되고 더 많은 사례가 연구된다면, 국내 현실에 맞는 업무 방식을 제안하고 번역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박지영 (2015) 「미국, 유럽, 중국, 캐나다, ISO 번역 표준에 관한 복수사례연구」, 『번역학연구』 16(2): 33-61.
- 신지선 (2007) 「공공기관 번역현황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번역학연구』 8(2): 75-101.

- 이향 (2003) 「번역물 감수(revision)의 정의」, 『통역과 번역』 5(1): 163-181.
- 이향 (2004) 「번역물 감수기준의 변천 고찰」, 『통역과 번역』 6(2): 59-79.
- Bisailon, Jocelyne (2007) 'Professional editing strategies used by six editors', *Written Communication* 24(4): 295-322.
- Breedveld, Hella (2002) 'Translation processes in time', *Target* 14(2): 221-240.
- Brunette, Louise. and Robert, Isabelle (2016) 'Should Revision Trainees Think Aloud while Revising Somebody Else's Translation? Insights from an Empirical Study with Professionals', *Meta* 61(2): 320-345.
- Brunette, Louise, Chantal Gagnon, and Jonathan Hine (2005) 'The GREVIS project: Revise or court calamity',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6(1): 29-45.
- Chakhachiro, Raymond (2005) 'Revision for quality', *Perspectives* 13(3): 255-238.
- Chesterman, Andrew (2000) *Methodological Oppositions in Translation Studies*.
- Graham, John D. (eds) (1989) *Checking, revision and editing In The translator s handbook*.
- Gile, Daniel (1995)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Amsterdam: Benjamins.
- Hayes, John R., Linda Flower, Karen A. Schriver, James Stratman, and Linda Carey (1987) 'Cognitive processes in revision.' *Advances in applied psycholinguistics* 2: 176-240.
- Hine, Jonathan T. (2003) 'Teaching text revision in a multilingual environment' in *Beyond the ivory tower: Rethinking translation pedag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135-156.
- Horguelin, Paul A., and Louise Brunette (1998) *Pratique de la révision*. *Brossard*, Québec: Linguattech.
- House, Juliane (1977) *A Model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Tübingen: TBL-Verlag
- House, Juliane (2001)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Linguistic Description versus SocialEvaluation', *Meta* 46: 243-257.

- Jakobsen, Arnt Lykke (2002) 'Translation drafting by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by translation students' in *Gyde Hansen, ed. Empirical Translation Studies. Process and Product*. Frederiksberg: Samfundslitteratur, 191-204.
- Ko, Leong (2011) Translation checking: a view from the translation market. *Perspectives* 19(2): 123-134.
- Künzli, Alexander (2006) 'Teaching and learning translation revision: Some suggestions based on evidence from a think-aloud protocol study' in *Current trends in translation teaching and learning*, M. Garant (Ed.) Helsinki: Department of Translation Studies Publication. III, Helsinki University, 9-24.
- Künzli, Alexander. (2007) 'Translation revision - A study of the performance of ten professional translators revising a legal text' in *Doubts and directions in Translation Studies* [Benjamins Translation Library 72], Y. Gambier, M. Shlesinger and R. Stolze (Ed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115-126.
- Marco, Josep (2007) 'The terminology of translation. Epistemological, conceptual and intercultural problems and their social consequences', *Target* 19(2): 255-269.
- Mossop, Brian (2011) 번역가를 위한 편집과 교정(Revising and Editing for Translators) 윤일환 역. 서울: 동인.
- Reiss, Katharina (2000) *Translation Criticism - The Potentials and Limitations: Categories and Criteria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Manchester: St Jerome.
- Robert, Isabelle (2008) Translation revision procedures: An explorative study. Boulogne, Pieter (ed.) Retrieved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8668909>.
- Robert, Isabelle S., and Luuk Van Waes (2014) 'Selecting a translation revision procedure: do common sense and statistics agree?', *Perspectives* 22(3): 304-320.
- Rochard, M. 1999. "La révision, instrument de transition / rupture entre monde

scolaire et monde professionnel”. Retrieved July 26 2007 from <http://perso.orange.fr/michel.rochard/Publications.html>

- Sager, Juan C. (1994) *Language engineering and translation: consequences of automation*. Vol. 1.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 Samuelsson-Brown, G. (2004) *A practical guide for translator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Schjoldager, Anne. Rasmussen, Kirsten. Thomsen, Christa (2008) ‘Précis-writing, Revision and Editing: Piloting the European Master in Translation’, *Meta* 53(4): 798-813.
- Shih, Claire Yiyi (2006) ‘Revision from translators’ point of view: An interview study’, *Target* 18(2): 295-312.

[Abstract]

**Analysis of Korean Translation Agencies' Revision Practices:
On Revision Parameters and Procedures**

Park, Ji-young
(Ajou University)

Revis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ranslation procedures, as it determines the final quality of a translation. However, research on revision, especially those exploring the actual revision practices, is limited. This study analyzes Korean translation agencies' revision practices by looking into the information on revision in their tender offers for a translation project.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 At Korean translation agencies, who revises translations?; In what procedures revision is implemented?; What are revision parameters?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translation agencies implement multi-phase revision processes, during which bilingual Koreans and native speakers of target languages collaborate. Bilingual revision precedes monolingual revision, and both processes are implemented twice respectively. By comparing source and target texts, Korean bilingual revisers check parameters, such as accuracy, equivalence with source texts, use of terminologies, punctuation and document formats, of which errors could be determined objectively. Monolingual reviewers focus on formality, naturalness, grammar and readability, using their insights as native speakers. Unlike the parameters for bilingual revision, monolingual revision parameters might be corrected subjectively, hence revision results could differ depending on revisers' experiences and capabilities.

▶ Key Words: reviser, revision, revision parameters, revision procedure, translation quality

▶ 주제어: 감수, 감수자, 감수 절차, 감수 항목, 번역 품질

박지영

아주대학교 통번역연구소

jy.interpreter@daum.net

관심분야: 번역 산업, 번역 품질평가, 번역 저작권

논문투고일: 2018년 5월 13일

심사완료일: 2018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15일